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6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1일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광주·전남 상생 협의체 구성 '호남권 경쟁력' 키워야

군공항 이전 문제 갈등 이후 협의 멈춤…성장·발전 기회 놓쳐

수도권 대 지방 구도 속 현안 매몰되기보다 지역 역량 모아야

광주·전남이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면서 호남권역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과 협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갈등상이 부각되면서 권역의 잠재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가장 멀리 자리하고, 영남권·충청권 등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가 작은 호남권이 광역자치단체 간 치밀한 연계 전략을 통해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들을 발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공동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의 실·국장,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등이 상시적으로 권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멈춰선 상태다. 당시 공동협력과제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등 11개를 선별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 과제의 추진 상황, 평가 및 이후 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대 들어 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이다.

특히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무안이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을 광주가 파기한 후 상호 행정 행위를 불신하거나 왜곡 해석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공항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민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무안 현지를 찾아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잇따르면서도 지원 조례 제정, 파기 협약의 복원 등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이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같은 호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라진 것도 안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광주·전남 간 연계 관광 사업 등과 관련 실무선에서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갈등만 필요 이상 표면화돼 시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대표적이다.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전북자치도까지 포함해 지역성, 미래 산업, 관광·서비스 등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발굴·조사·제안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논의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지역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중앙정부 사업에 포함시켜 그 혜택이 각 지역에 고루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또 광주와 전남이 함께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시도민에게 발표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년만인 오는 6월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역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시너지 증대는 의지의 문제이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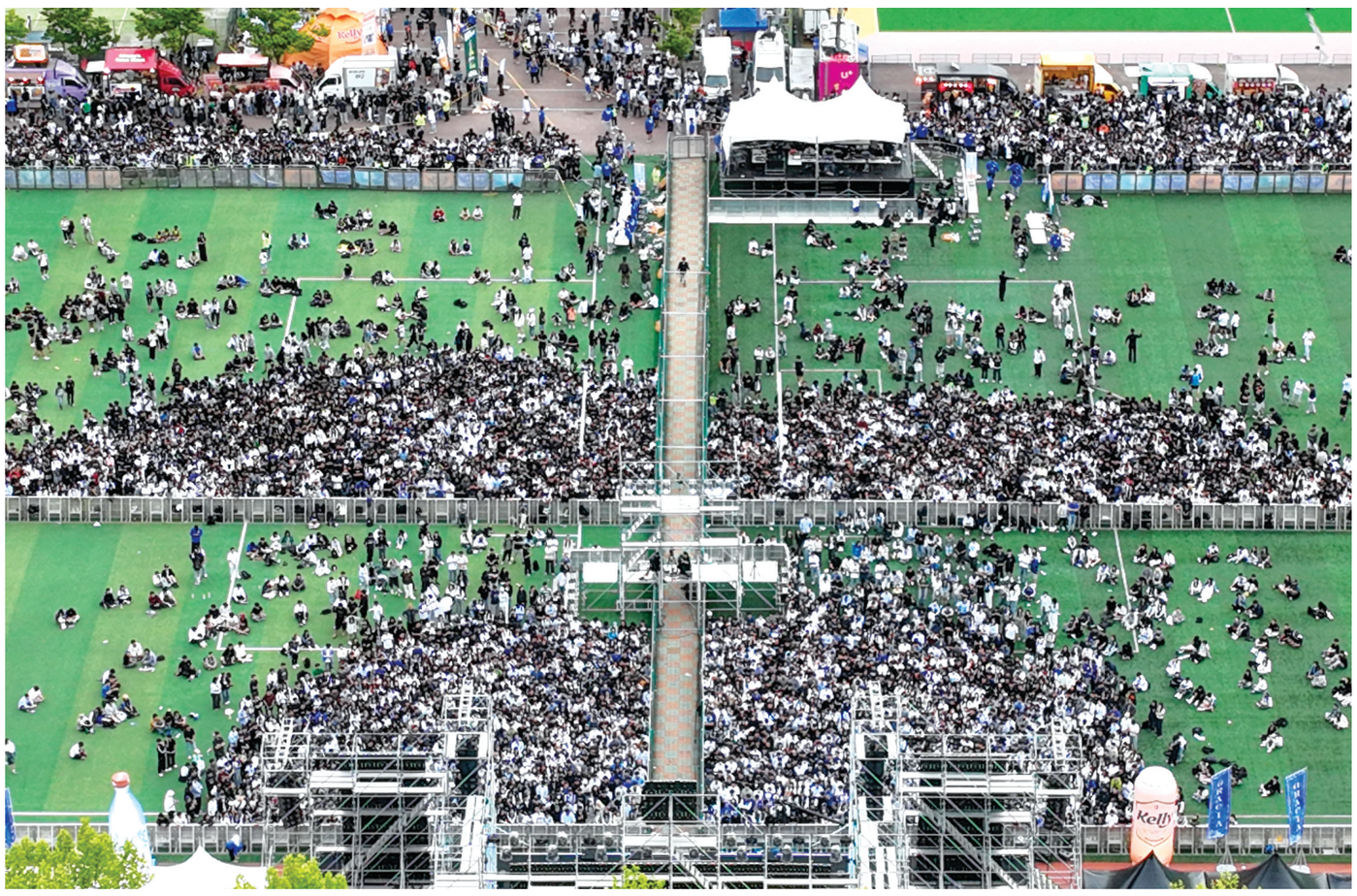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6면

팔도 건축기행 - 춘천KT&G 상상마당 ▶18면

타이거즈 전망대 - 임기영·이의리 복귀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조선대 대동제 공연 관람 인파 조선대학교 대동제가 27일 개막했다. 대운동장 무대에서 펼쳐지는 뉴진스·볼빨간사춘기 등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대학생·시민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3국 FTA 협상 속도

한반도 비핵화에는 입장차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간 중단됐다.

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